

# 부활제 5주일 복음나눔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요한 14,4)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다음의 준비를 합니다.

- 다 같이 손을 잡고 성경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합니다.(약 1분 정도)
- 주도자가 손을 놓으면 다 같이 손을 놓으면 됩니다.
- 다음의 기도를 다 같이 바칩니다.
-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 5. 독서 (성경읽기 1) - 요한 14,1-12

- 1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 5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7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 8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성경을 미리 노트에 써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10분 정도)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 성경해설 >

복음에는 ‘너희’ 라는 단어와 ‘나(내)’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나)께서 제자들(너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때이며, 당신이 곧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되셨음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위로와 안심과 당부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때입니다.

진리를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나다. 나를 따라라. 나를 믿으라.’ 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말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확신에 차있고 당당합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예수님의 언행은 항상 당당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그 뜻에 따라 살아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넘치도록 확고하게 말씀해주십니다.

복음은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1절).” 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산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라자로가 죽어서 마리아도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셨을 때(11,33),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12,27), 제자인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실 때(13,21) 예수님의 마음이 산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산란하실 때 더욱 더 하느님의 뜻을 여쭙고, 의지했습니다.(12,27-28: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

이제 곧 예수님께서 수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제자들의 마음은 산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 말씀이 남아계십니다. 마음이 산란함을 직접 겪으신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확신이 없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5절)”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8절).”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 알고 있다(4절)’ 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았습시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모든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가르침을 듣고 알게 됨을 넘어섭니다. 내 뜻에 맞는 해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알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안에서 말씀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뿐 아니라 더 큰 일

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12절). 아직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도 오늘 복음의 마지막 문장이 뜻하는 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12절).”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묵상나누기**

- 마음이 산란해진 때가 있습니까? 그 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와 닿은 적이 있었다면 그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6. 되새김(성경읽기 2)**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 읽는 동안 마음에 가장 많이 와 닿은 구절이나 단어를 기억해 둡니다.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이야기 합니다.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